지역 내 소비 촉진 '경제 활력'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액 사용률 83%… 지역화폐 가맹점·신규 창업 점포 증가

장수군은 지난 2월 26일 첫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분석한 결과 총 지급액 약 28억원 중 약 23억원이 사용돼 83%의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첫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 군민에게 2년 동안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장수읍이 34%, 그 외 6개면이 66%의 사용률을 나타냈다. 또 업종별로는 음식점·카페(22%), 5대 업종(16%), 농협(8%), 주유소(6%), 편의점(3%), 미용실 등 기타 업종(45%) 순으로 사용됐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식품판매점이 5억1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장수군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2일 기준 676개소에서 지난달 말 기준 854개소로 178개소 증가했고 가전제품 대리점, 카페, 미용실 등 신규 창업 점포가 17개소나 생겼다.

장수군은 지난 2월 26일 첫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분석한 결과 총 지급액 약 28억원 중 약 23억원이 사용돼 83%의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높은 사용률은 물론이고 지역화폐 가맹점 및 신규 창업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감소세 제동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달 30일에 1월분과 3월분 기본소득이 동시에 지급됨에 따라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아 단기간 내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와 '장수군 행복싸롱 이동장터' 운영과 같은 다양한 소비 연계 정책을 지속 추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농업인 융자 부담 완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확대 후 첫 융자대상자 확정

진안군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융자대상자 44건, 총 13억 9,200만 원의 융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안군이 자체 운용하는 정책자금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리 융자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심의는 올해 초 기금 규모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운영 기준을 개선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원예·식량·홍삼한방·축산어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55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의 결과 44건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원예 34건, 축산어업 7건, 식량 2건, 홍삼한방 1건이 선정됐으며, 11건은 중복지원·사업범위 초과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됐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농가 5천만 원·법인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방식이며, 올해부터 적용된 개선 기준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융자를 실행해야 한다.

진안군은 선정 결과를 대상 농가에 개별 통보하고,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연계하여 4월 중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이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6개 읍면 주민 60명으로 구성된 '클린농촌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농로와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운반하고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분리·선별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분리수거 교육을 병행해 마을 환경 정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 '재택 의료서비스' 시행

거동 불편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대상 의료·돌봄 제공

무주군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재택 의료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3일부터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 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 상태 평가와 복약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정기적인 의료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무주군보건의료원 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무주군민이다.

대상자는 통합지원회의와 의료진 진단을 거쳐 선정된다.

이용 비용은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추가 방문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무주=손홍기 기자

공중보건의 제대 따른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이경영 진안군수 권안대행, 진안군의료원 응급실 점검·격려

진안군은 지난 8일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진안군의료원(원장 조백환)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행정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따른 응급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 상황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특히 현장에서 응급실 운영 여건과 비상근무 편경 계획, 인력 운영상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진안군의료원은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사 5명 중 4명이 4월 9일자로 복무를 마침에 따라,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등 전문의와 응급실 전담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순환 당직 체계를 가동해 응급실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진료과장으로 초빙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고, 응급실 당직에 참여한 전문의들이 외래 진료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응급진료 공백은 물론 외래 이용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30일까지 진안사랑장학생 모집

진안군은 지역 인재 육성과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진안사랑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발 분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특기·복지·유학 장학금 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위한 특기 및 복지 장학금도 함께 운영된다. 또한 관내 학교 진학 및 전입 학생을 위한 진학장학금과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장학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환류형 장학제도'로 운영되는 점이 눈에 띈다. 대학생 장학생은 선발 이후 연 1회 이상 지역 내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과 인재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학금은 유형에 따라 대학생 최대 400만원, 중·고등학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안군청 가족행복과 교육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행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일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지사에서 관리하는 4,130ha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수 확보 및 용·배수로 준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진장지사가 관리중인 3개군(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농업용저수지 61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80%로 평년 대비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올해 저수지 준설 사업을 3개소 장남, 필덕, 단평저수지 60천톤의 저수량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중으로 영농기 전 공사를 마무리 하고, 영농급수 확보를 위해 잔여 공정은 영농기 이후 시행한다.

또한 지역 내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222개소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용·배수로 준설 및 보수공사 등 시설물 정비도 영농기전 완료하여 4월말부터 본격적인 급수를 시작하게 된다.

본 급수기 이후 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수원의 확보와 급수량 조절 등 용수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농민들에게 물 절약 홍보활동을 강화 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농기센터,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진안군은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의 전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다.

신청은 진안군 관내 소규모 가공업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방문 또는 이메일(CJY2026@korea.kr)을 통해 사업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